

◎ 친구는 식탁이요, 화로다

우정에 관한 명언

- 벼이 없으면 이 세계는 황야에 지나지 않는다. --- 프랜시스 베이컨
- 친구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씨 뿌리고 감사함으로 거두어들이는 밭이다. 그는 또 여러분의 식탁이요 화로다. 여러분이 배고플 때와 포근함이 필요할 때 찾아가기 때문이다. ----- 칼릴 지브란
-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의 품 안에서 휴식을 구하고 있다. 그곳에서라면 가슴을 열고 마음껏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. ----- 요한 볼프강 폰 괴테
-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다. ----- 헨리 소로우
- “많은 벼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의 진실한 벼를 가질 수 없다.” ----- 아리스토텔레스
- 친구는 그 숫자보다 우정의 질이 더 중요하다. 참된 친구란 영혼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사이다.
- 竹馬故友 : 대말을 타고 놀던 벼이라는 뜻으로,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며 친하게 지낸 친구
- “우정은 천천히 익는 과일이다.” ----- 아리스토텔레스
- 朋友有信
-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진정한 우정이 생긴다. 친구란 서로 통해야 친해진다.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